

# 2016. 5. 25.(수)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 3일간 DMZ 100km 달린다...9월 울트라 트레일 러닝

[KFM 경기방송 = 김진규 기자] 2박 3일간 흠길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대회가 오는 9월 1~4일까지 파주와 김포, 연천 등 접경지역 평화누리길에서 펼쳐집니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으로, 경기도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고자 이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회는 외국인 선수 등 전문선수와 일반 참가자로 나뉘 행사 이틀째인 9월 2일 김포시, 3일 연천군, 4일 파주시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동안 다양한 축하공연과 외국인 참가 선수들을 위한 DMZ 팸투어도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내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dmzultratrail.com](http://www.dmzultratrail.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진규 [kfmbodo@kfm.co.kr](mailto: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8.3 cm

## 기호일보

## 2박3일간 DMZ 인근 달음질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 개최

경기도는 DMZ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1~4일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트레일러닝은 산, 들, 초원지대를 달리는 마라톤으로 최근 프랑

### 오늘부터 참가신청 접수

스, 홍콩, 스페인 등에서 잇달아 대회가 열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도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함께 주최한 이번 대회는 각



접경지역 평화누리길에서 열린다.

외국인 선수 등 전문선수와 일반인으로 나뉘 9

월 2일 김포시를 시작으로 3일 연천군, 4일 파주시에서 진행된다.

코스는 김포 대명항~애기봉(37km), 연천 공설운동장~꽃봉

산(순환형 50km), 파주 임진각~에코뮤지엄(순환형 13km)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 선수들은 1일 캠프 그리브스에 입소, 2박 3일간 총 100km를 달리고 일반인들은 연천군이나 파주시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 5만 원, 13km는 3만 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5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dmzultratrai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mailto:skh@kihoilbo.co.kr)

19.9 X 7.1 cm

## DMZ 길 100km 달린다 9월 트레일 러닝 대회

### 김포·파주·연천서 2박3일간

2박3일간 흙길과 산길 100km를 달리는 '비무장지대(DMZ) 국제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가 9월에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9월 1~4일 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를 DMZ 관광상품의 하나로 처음 개발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DMZ의 역사·문화·생태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하지 않은 길이나 산·들·초원지대 등을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이다. 대회 구간 중 포장된 길은 20% 미만으로 한정된다.

대회는 외국인 선수와 국내 전문 선수, 일반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트레일 러닝은 2일 김포시, 3일 연천군, 4일 파주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포시 코스는 대명항~김포CC~문수산성 입구~애기봉 구간(37km)이다. 연천군 코스는 연천공설운동장~성산~지장봉~고대산~꽃봉산~연천공설운동장 구간(50km)이다. 파주시 코스는 임진각~통일대교~에코뮤지엄~임진강군부대 순찰로~에코뮤지엄~임진각 구간(13km)이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전문 선수들은 대회 기간에 민통선 지역의 파주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에 9월 1일 입소해 3박4일간 숙박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연천군 코스와 파주시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행사로 1일 캠프 그리브스에서 '나라사랑 콘서트' 축하 공연도 마련된다. 대회 중에는 해병 2사단과 육군 5사단의 군악대 공연이 열리고,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DMZ 팸투어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5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dmzultratrail.com](http://www.dmzultratr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mailto:ijjeon@joongang.co.kr)

5.7 X 21.5 cm

## 9월 파주·연천·김포 일대서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트레일러닝 대회가 오는 9월 경기도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4일 파주, 연천, 김포 일원 DMZ에서 개최하는 '2016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25일 오픈하고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트레일러닝은 트레일(Trail)과 러닝(Running)의 합성어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다. 최근 프랑스 울트라 트레일 두 몽블랑, 홍콩의 100km 울트라 트레일, 스페인의 트랜스 그란 카나리아 등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 및 전문 선수들은 민통선 내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에서 숙식하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2박3일간 총 100km를 달리게 된다. 일반 참가자들은 연천군 코스 50km나 파주시 코스 13km를 달릴 수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6.2 X 12.3 cm

# 전세계 철인 러너 '평화누리길' 달린다

전세계 '철인 러너'들이 2박3일동안 경기도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달린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공동으로 오는 9월1~4일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이다. 프랑스 울트라 트레일 두 몽블랑, 홍콩의 100km 울트라 트레일, 스페인의 그란 카나리아 등 국제대회가 유명하다. 대회는 외국인 선수 등 전문선수와 일반 참가자로 나눠 행사 이틀째인 9월2일 김포시, 3일 연천군, 4일 파주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포시 코스는 대명항~김포CC~문수산성입구~애기봉 구간(37km)이며 연

## 경기도·김포시·파주시·연천군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 9월1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

천군 코스는 연천공설운동장~성산~지장봉~고대산~꽃봉산~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구간(50km)이다.

파주시 코스는 임진각~통일대교~에코뮤지엄~임진강 군부대 순찰로~에코뮤지엄~임진각 구간(13km)이다.

전문선수들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에 있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9월1일 입소해 3박4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대회에 참가한다. 일반인들은 연천군 코스와 파주시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0km 30만원, 50km 5만원, 13km 3만원이다.

부대행사도 마련돼 9월1일 캠프 그리브스에서 나라사랑 콘서트 축하공연이, 대회 중에는 해병 2사단과 육군 5사단의 군악대 공연이 펼쳐진다. 외국인 참가 선수들을 위한 DMZ 팸투어도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5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dmzultratrail.com](http://www.dmzultratr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윤병집 도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활성화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접경지역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DMZ 일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 2박3일간 총 100km 코스 '평화누리길' 원없이 달린다

## 9월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트레일러닝 대회가 경기도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 100km에 걸쳐 열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6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가 참가자를 25일부터 접수한다. 접수는 이날 오픈되는 공식홈페이지([www.dmzultratrail.com](http://www.dmzultratrail.com))에서 가능하다.

오는 9월 1~4일 개최되는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는 대회 전날 외국인 선수 및 전문선수 대상 파주 캠프 그리브스 입소를 시작으로 1일차에는 김포시, 2일차에는 연천군, 3일차에는 파주시 DMZ 일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김포시 대명항~김포 C.C~문수산성 입구~애기봉 37km와 연천군 공설운동장~성산~지장봉~고대산~꽃봉산~공설운동장 50km, 파주시 임진각~통일대교~에코뮤지엄~60·64T~에코뮤지엄~임진각 13km 코스로 구성돼 있다.

경기방식은 선수용 프로그램과 일반

일반용·선수용 프로그램 진행 대회 전날 군악대 공연 등 풍성 오늘부터 홈페이지서 참가 접수

인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외국인 선수 및 전문 선수들은 민통선 내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에서 숙식하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2박 3일간 총 100km를 달리게 된다. 일반 참가자들은 연천군 코스 50km 또는 파주시 코스 13km를 달릴 수 있다. 참가비는 100km코스는 30만 원, 50km코스 5만 원, 13km코스는 3만 원이다.

대회 전날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나라사랑 콘서트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대회중에는 해병2사단과 보병5사단의 군악대 공연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대회 종료 후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DMZ 일원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활성화 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접

경지역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기도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DMZ 일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이란 트레일(Trail)과 러닝(Running)의 합성어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다. 최근 프랑스 울트라 트레일 두 몽블랑(Ultra-Trail du Mont-Blanc), 홍콩의 100km 울트라 트레일, 스페인의 트랜스 그란 카나리아(TRANS GRAN CANARIA) 등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는 추세다.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특성상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포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세계 각국의 마니아를 대상으로,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잘 보존된 DMZ를 활용, DMZ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DMZ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삼고자 'DMZ 트레일 러닝대회'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조윤성기자**

